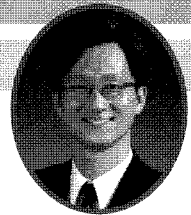


대실혈후 원기대허에 인삼일미

-한의학으로 본 인삼의 효능과 응용(中)-



최호영 ·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

1. 개설
2. 한의학에서 인삼의 응용역사
 - (1) 한대
 - (2) 위진남북조시대
 - (3) 당대
 - (4) 송대
 - (5) 금원대
 - (6) 명대
 - (7) 청대
3. 인삼의 응용
 - (1) 탈증
 - (2) 비허증
 - (3) 폐허증
 - (4) 불장건망증
 - (5) 진취증, 소갈증, 혈허증
 - (6) 양위증, 허손증
 - (7) 사질정허증

(3)당대(唐代)

당대에 이르러서는 인삼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임상응용이 확대되었다.

‘약성론’ (藥性論)에서 이순(李珣)이 인삼을 ‘지번조’ (止煩躁)한다고 했다.

이 시기에는 인삼을 보심기(補心氣), 영신익지(寧神益智)하는데 사용한 처방서가 많아졌다.

실례로 손사막(孫思邈)의 ‘비급천금요방’ (備急千金要方)의 정지환(定志丸)은 인삼과 복령, 창포(菖蒲), 원지(遠志) 동량을 가루내고 연밀(煉蜜)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로 환을 만들어 한번에 7환을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처방증의 인삼은 보심기, 안심신(安心神)하고 복령은 영심안신(寧心安神), 창포와 원지는 화담개규(化

痰開竅), 영신(寧神)한다.

본방(本方)은 기허담요(氣虛痰擾), 심계실안(心悸失眠), 건망 등에 사용한다.

또한 ‘천금익방’ (千金翼方)에서는 인삼, 복령 각 9g, 복신(茯神) 12g, 당귀(當歸), 계심(桂心), 감초 각 6g, 생강 24g, 대조(大棗) 5개를 수전복(水煎服)하여 치료한다.

처방증에 인삼은 산후지허(產後志虛)를 보(補)하며 또 영신익지하여 일약이용(一藥二用)이 된다.

(4)송대(宋代)

송대에는 출판문화의 번성과 함께 의학학에도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으며 인삼의 응용도 날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인삼은 비위허약(脾胃虛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제

가 아주 많이 출현했다.

‘태평혜민화제국방’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는 많은 유효한 방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사군자탕(四君子湯)은 인삼, 적감초(炙甘草), 복령, 백출(白朮), 각등분(各等分)을 가루내어 한번에 15g을 수전복하는데 이 처방은 익기보중(益氣補中), 건비양위(健脾養胃)하는 효능이 있다.

처방중에 인삼, 백출은 보비익기(補脾益氣)하고 복령은 좌약(佐藥)으로 삼습건비(參濕健脾)하고 적감초는 감완화중(甘緩和中)하며 합용(合用)하면 익기보중의 효능이 있다.

이 처방은 ‘금궤요략’ (金櫃要略)에서 인삼탕의 변방으로 중경(仲景)의 보중지의(補中之意)를 잃지 않고 후세의 보익비위(補益脾胃)의 기본 처방이 되었다.

또 삼령백출산(參苓白朮散)은 인삼, 백출, 백복령, 적감초, 산약(山藥) 각 1,000g과 백편두(白扁豆), 강즙침초(薑汁浸炒) 각 750g, 연자육(蓮子肉), 의이인(薏苡仁), 축사인(縮砂仁), 초길경(炒桔梗) 각 500g을 가루내어 한번에 6g을 조탕으로 조하(調下)하는데 건비익기, 화위삼습(和胃滲濕)하는 효능이 있어 비위기허(脾胃氣虛)하면서 협습자(挾濕者)에게 사용한다. 처방중 인삼은 보익기하며 거습(祛濕)을 돕는다.

그 외에 인삼 패독산(敗毒山)은 시

호(柴胡), 인삼, 길경, 천궁(川芎), 복령, 지각(枳殼), 전호(前胡), 강활(羌活), 독활(獨活) 각 등분을 가루내어 한번에 15g을 생강, 박하(薄荷)를 조금 넣어서 끓인 물로 복용한다.

처방중에 인삼은 익기부정(益氣扶正)하고 거사(祛邪)하며 이는 익기해표(益氣解表)의 대표방(代表方)이다.



인삼의 익기하는 효능이 능히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5)금원대(金元代)

금원대에 이르러 인삼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더욱 깊어졌다.

임상응용에서 광범위하게 비폐기허증(脾肺氣虛症)에 쓰인것 외에 갈가구(葛可久)가 만든 독삼탕(獨參湯)에는 인삼 60g을 조탕전복(棗湯煎服)하여 ‘지혈후 이차약보지’ (止

血後 以此藥補之)하였다.

대실혈후(大失血後) 원기대허(元氣大虛)에 인삼일미(人參一味)를 중용(重用)하여 대보원기(大補元氣)하여 ‘혈탈자, 당익기기’ (血脫者, 當益其氣)한 것이다.

보기(補氣)로서 생혈(生血)하니 이는 후세에 독삼탕(獨參湯)으로 보기고탈(補氣固脫), 구급부위(救急扶危)하는 좋은 방도를 알려준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삼부탕(參附湯)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인삼을 만약 부자(附子)와 함께 사용하면 익기회양(益氣回陽), 고탈(固脫)의 효능이 더욱 강해진다.

‘부인양방’ (婦人良方)의 삼부탕은 인삼 30g, 포부자 15g에 생강 2편, 대조(大棗) 3개를 수전(水煎)하여 천천히 복용하는데 회양(回陽), 익기, 고탈의 효능이 뛰어나다.

원기대후(元氣大虧), 양기포탈(陽氣暴脫)하여 수족궤냉(手足厥冷), 한출(汗出), 호흡미약, 맥미(脈微) 등의 증상에 사용한다.

처방중의 인삼은 대보원기(大補元氣)하여 이로써 고후천지본(固後天之本)하며 중재고기(重在固氣)하다. 부자(附子)는 온장원양(溫壯元陽)하여 이로써 고선천지본(固先天之本)하며 중재회양(重在回陽)하므로 두 약을 함께 사용하면 상보상성(相補相成)하여 약효가 신속하여 위급한 병증을 치료할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된다. ●